

케노시스 신학 관점에서 바라본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동화 이해*

A Study on the Work by Jung-Saeng Kwon in terms of the *Kenosis*:
Exploring *God Lives Next Door to Me*

정덕희 (Deok Hee Jung)**

ABSTRACT

This essay aims to explore the *kenosis* theology through the children's story, *God lives next door to me*, written by Kwon, Jung-Saeng. God in the story is portrayed as a humble and vulnerable character, far from the feature of Almighty God. And yet the concept of the *kenosis* offers a fresh perspective to examine such a vulnerable God in the story. In particular, the *kenosis* theology by Moltmann will be helpful for current project. The *kenosis* signifies the indwelling of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of human beings. God's self-emptiness is the another aspect of Almighty God. Moreover, God's *kenosis* is an authentic expression of God's steadfast love toward the world. In this light, human has to empty himself also just like God because human is the one who have been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Kwon points out that Korean church today is filled with greed and avarice. They should restore the spirit of self-emptiness. So Kwon provides this short story by which the whole of the readers should follow the self-emptying of God. In this sense, this children's story can be said an excellent theological story.

Key Words: Jung-Saeng Kwon, *kenosis*, *God lives next door to me*, self-emptiness, Moltmann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문과대학 기독교학과 조교수.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ontheway21@hnu.kr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에서 성경 읽기 및 연구는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왔다. 성경 텍스트를 읽고 공부하는 데서 출발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토대로 성경 텍스트를 입체적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성경 텍스트를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교차 읽기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 색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최근 성서와 인문학 간의 학제간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제간 연구 안에서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들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문학 작품을 통해 성경을 읽는 시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문학작품 속에 숨겨진 신앙 또는 신학 주제를 찾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어 왔다. 중요한 것은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 문학 속에 투영된 작가의 신학적 관점을 파악해서 더 깊은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단순히 문학작품에 내재된 성경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통해 재현되는 작가의 신학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신학적 담론을 찾아 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반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문학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많은 문학 작품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신학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가지고서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까? 물론 오랜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양 문학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컨텍스트 속에서 신앙과 학문을 고민하는 우리에게서는 우리 글로 기록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조망하는 시도가 더욱 유의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 문학 작품 중 매우 신앙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가를 선택하려고 한다. 바로 아동문학가 권정생(1937-2007년)의 작품이다. 2007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학계에서 그의 작품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동화작가로서의 특유의 감성적 글쓰기에도 기원하지만, 특별히 그의 작품 속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환,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깊은 고뇌와 사색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정생 문학은 그동안 많은 연구물들을 산출해왔다. 권정생 관련 국내 약 50여편의 연구논문이 출판되었으며 그 연구물들은 권정생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인문사회 영역—아동청소년 문학, 세계 문학 비교연구, 언어학, 상담학, 교육학, 민속학, 지역사회학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그가 남긴 문학작품들이 아동들의 정서와 인격 형성에 주는 영향, 아동문학에 있어서 그의 공헌, 그리고 그의 작품에 투영된 한국 사회의 모습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기독교 및 신학적 관점에서 연구된 학술적 연구물은

전무한 상태다. 그러므로 그의 동화가 독자들의 영성 및 신학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활발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는 권정생의 작품 속에 깃들여진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책은 그의 장편동화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이다. 물론 이 작품 외에도 『강아지똥』을 비롯 『눈물 흘리시는 하느님』, 『동근이와 아기 소나무들』과 같은 작품들 역시 기독교 신학 주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 속에서 간략하게 메시지 정도로만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담론을 내재하고 있으며, 동화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신학적 고민을 하게 만드는, 깊은 연구를 요구하는 작품이다. 이 책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해 성숙한 어른을 위한 동화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연구 방향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본 작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새롭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¹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비움’ 또는 ‘자기-제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논의를 잘 내포하고 있는 케노시스(*kenosis*)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케노시스 신학으로 권정생의 문학 세계를 고찰하며 권정생 작품 속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작품은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한국 사회와 교회 상황을 성찰하게 한다. 한국 사회와 현실을 반영하며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동화 속에 나타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조망해 볼 것이며,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 정신으로 케노시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격적 논의에 앞서 먼저 권정생과 그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 그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1) 권정생은 개신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느님’이라는 표기를 사용했다. 그가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신명(神名) ‘하나님’ 대신 천주교에서 널리 수용하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및 개신교회가 그동안 보여준 배타주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본 논문은 그가 개신교 기독교인이었음을 고려하여, 또한 본 논문의 주 독자층이 ‘하나님’에 더욱 익숙한 청중들을 고려하여, 권정생 작품에서의 직접인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일러둔다. ‘하느님’과 ‘하나님’의 표기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중요하고 방대한 학술적 주제가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손은실(2022)의 최근 연구물을 참고하라.

II. 권정생의 삶과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1. 권정생의 삶

권정생은 1937년 9월 일제 강점기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서 태평양 전쟁의 한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본 빈민가에서 가난한 살림을 하던 권정생의 가족들은 1946년 해방 이듬해에 고국으로 귀국하지만, 권정생이 열네 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의 풍파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이후 나무 장사를 비롯 수많은 장사를 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열아홉 살 때 결핵을 앓기 시작한 이후 그는 평생 병마에 싸우는 신세가 되었다. 1964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걸인 생활을 하다가 1967년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일직교회 문간방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종지기 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한다. 그 동화는 기독교 신앙을 기저에 둔 아동 문학 작품들이었다. 이때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 문학가로서의 그의 여정이 시작된다(원종찬, 2017: 47).

권정생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계기는 그의 책 『강아지똥』이다. 1968년 봄에 동시에 써 두었던 것을 1969년 봄 동화로 고쳐 써서 제1회 기독교아동문학상에 당선된다. 이후 그 동화는 『기독교교육』 1969년 6월호에 발표되었다. 권정생 나이 서른 두살에 발표된 『강아지똥』은 자신의 자전적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서문에서 그는 자신을 “거지”에 비유하며,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터뜨린 울음소리로 그 동화를 썼다고 술회한다(권정생, 1974). 이 짧은 동화에서는 스스로를 “오물덩이”라고 고백하곤 했던 권정생의 진솔한 고백이 엿보이기도 한다(원종찬, 2008). 어린 시절 일본에서 자라며 늘 외톨이로 자라야만 했던 곤고했던 삶, 그리고 외롭고 연약하게 자랐던 자신의 삶을 강아지똥에 투영하여 묘사한 자화상과도 같은 동화이다. 비록 어린이를 위한 짧은 동화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 가치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는 메시지, 즉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는 신앙적 메시지가 깃들여 있다. 이와 더불어 강아지똥의 희생을 통해 민들레가 꽃을 피운다는 장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온 인류 구원의 열매라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와도 연관이 된다.

문학을 통해 신앙을 표현하는 권정생의 글쓰기 방식은 비단 개인적 신앙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신앙적 고민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한국 교회로까지 확대된다. 권정생은 다루고자 하는 작품의 메시지에 따라 다양한 문학 양식을 채택해서 다루곤 했는데(염혜숙, 2019: 193), 때로는 매우 사회고발적인 강한 메시지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 전체를 조망하며 인간의 삶을 반성하는 작품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다. 이 작품은 한(恨)의 정서와 애통함이 담겨있는 상당히 무거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사회 혼란과 전쟁 그리고 공포와 계속되는 혼돈 속에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바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작품이다. 실제 권정생은 전쟁통에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이 겪은 전쟁의 불행을 어린이들에게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했기에 그는 ‘식민지의 분단과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늘 깊은 고민을 하였었고 이러한 고민에서 이 작품은 시작된다 (권정생, 2008: 21). 그는 동화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통렬하게 반성한다. 사회뿐만 아니라 왜곡된 신앙이 판을 치는 한국 교회를 향해 고언(苦言)을 내뱉기도 한다. 매우 강한 꾸지람을 전한다.

작가의 상상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작금의 한국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 보실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서 내러티브를 전개해 나간다.² 그러면서 권정생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곤고한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간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임을 이 작품에서 드러낸다.

이 책은 매우 도발적인 장면들의 빈번한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파격적인 표현 및 개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또한 신학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물론 이 책은 아동문학에 속하며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 읽을 책이기도 하지만, 깊이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담론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권정생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깊은 이해와 이를 통해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서 동화를 써내려 간다. 그렇다면 과연 본서에서 드러나는 권정생의 신학적 시선은 어떠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본 연구는 현대 신학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자기-비움을 표현하는 케노시스가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2.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작품 개요

이 작품은 1989년 7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새가정』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연재되었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낸 장편동화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근교에 우리 이웃에 살게 된다는 매우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서 재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당시 처음 이 작품을 연재할 때 제목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가 아

2) 권정생의 작품 안에 신학적 모티프가 있다는 점은 톨스토이 작품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이희정(2018, 42)은 권정생을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와 비교를 하며 “같이 각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살폈을 때, 권정생이 작품을 쓰기 위한 모티프를 얻고 주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을 하면서 톨스토이 작품을 읽은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무척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니라 책의 목차에 나오는 단편 에피소드들—‘하느님이 세상으로 내려오다,’ ‘수박밭에 떨어진 하느님’ 등—로 발표 되었으며, 매월 연작으로 발표된 단편을 묶어서 장편으로 출판할 무렵 지금의 작품 제목이 붙게 되었다. 작품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예수 승천 이후 2천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 다 버리고 다시 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된다. 이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쓰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내려와서 살기로 굳게 다짐한다. 처음 목적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지만, 오는 도중 거센 바람에 휩쓸려 동쪽으로 계속 날라 가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어, 경상도 어느 들판 윤서방네 수박밭에 떨어지게 된다. 마침 대한민국은 여름이 한창이었고, 그날은 우박이 심하게 떨어지던 날이었다. 우박은 수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우박 때문에 농사를 망쳐 하늘을 원망하는 윤서방에게 하나님은 미안해하며 속으로 삭삭 빈다. 세상에 오셔서 겨우 하루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울로 가서 변두리 철거민 마을에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다. 그곳에서 피난민 과천댁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 함께 살게 된다. 예수님은 공사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서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해간다. 청소부로 취직해서 일하던 예수님은 부모 없는 다섯 살 고아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를 데리고 함께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철거민 포크레인이 천막촌에 들이닥치고 온 가족이 거주하던 천막집은 무너졌다. 결국 하나님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강변에 천막을 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하실 셋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하나님은 병석에 눕게 되지만, 병원에 갈 돈조차 없는 어려운 신세다. 설상가상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

집안뿐만 아니라 세상도 온통 혼란스럽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세상은 흥겨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교회는 그저 말세 지옥 이야기만 하며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운 이야기만 가득하다. 어느 날 셋방살이를 하던 가난한 삼형제가 방 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질식해서 죽게 되고, 산동네에서 봉식이라는 아이가 연탄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일이 생겨난다. 하나님이 봉식이를 업고 병원에 갔으나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모습을 목도한다. 잘못 되어가고 있는 세상을 하염없이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다. 이웃사랑보다 기적만 바라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하나님은 하늘로 다시 돌아갈까 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끝까지 남아서 함께 계신다.

III. 낮아지신 하나님 그리고 케노시스

1. 낮아지신 하나님

이 작품은 매우 어둡다. 세상은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머물렀던 달동네와 판자촌은 바로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현실 묘사의 핵심은 결국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작가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조명하되,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주목할 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한다.

권정생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 동화의 시작은 분명 성육신이라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신학적 주제이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급진적이다. 하나님이 ‘강한 자, 전지전능한 자, 완벽한 자’가 아닌,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로 그리고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정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한번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보자꾸나... 그냥 우리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한번 살아 보자꾸나...’ [예수님]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본다면 저도 찬성입니다.’”(권정생, 1994: 10).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존 성육신 개념과 분명 차이점이 있고, 이에 따라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자명해 보인다. 다만 권정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등장시킴으로써 두 캐릭터의 신적 대화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 것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묘미라 할 수 있겠다.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등장은 복음서 초반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 간다. 이 땅에 왔지만 목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동화속 하나님도 처음부터 목을 곳을 찾아 헤매는 신세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인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머리 둘 곳 없었다는 표현(마 8:20 참고)을 연상케 하듯 계속해서 쫓겨 다니고 헤매는 신세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천하고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읽는 내내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³ 하나님이 결혼을 한다는 묘사, 하나님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점, 하

3) 권정생의 작품 안에 신학적 모티프가 있다는 점은 톨스토이 작품과 비교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이희정(2018, 42)은 권정생을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와 비교를 하며 “같이 각 두 편의 작품을 통해 살폈을 때, 권정생이 작품을 쓰기 위한 모티프를 얻고 주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을 하면서 톨스토이 작품을 읽은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무척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나눔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는 장면, 하나님이 교회에 등록한다는 점, 예수님이 과일장수를 하고 노동관에서 일을 하고 이웃으로부터 혼나는 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우 낯설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이러한 전지전능함이 제거된 하나님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 힘이 강한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들에 비해 가장 완벽해야만 하는 존재가 저렇게도 힘이 없는 존재로 묘사된 점은 작품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으로 설명 가능한데, 바로 케노시스 신학이다.

2. 케노시스

케노시스(*kenosis*)는 현대 신론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자기-비움’(self-emptiness)을 의미하는 단어다. 케노시스는 빌립보서 2장 5-11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찬가에서 근거를 찾는다. 바울이 기록한 그리스도 찬가에서 ‘비우다’를 표현하는 헬라어 동사 ‘케노오’(κενόω)의 명사형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올 때 신성에 속한 속성들을 스스로 비웠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단어이며, 그리스도의 겸허설(kenoticism)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McGrath, 김기철 역, 2017: 432).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는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적 상태로부터 지상에서의 인간적인 형태로의 하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케노시스는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다는 낮아지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회퍼(Bonhoeffer, 김순현 역, 2016: 343-344)의 『옥중서신』에 나오는 아래 기록은 빌립보서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자기-비움’이라는 신학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밀어내시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연약하시며, 오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성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력과 수난을 제시하네. 고난을 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지.”

본회퍼가 묘사한 무력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빌립보서를 토대로 하는 케노시스라는 개념으로 선명하게 제시된다. 케노시스 담론의 출발점은 ‘자기-비움’을 통해 기독교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Altizer, 1966). 케노시스라는 이 개념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연구되고 있지만, 권정생의 동화에 나타나는 신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학자는 몰트만(Jürgen Moltmann)이라 할 수 있다. 몰트만은 하나님의 자기비움을 삼위일체적 본성으로 확장시켜서 케노시스 신학을 더욱 체계화한 사람이다 (고형상, 2019: 15).

몰트만은 유대교적 사고에 근거해, 셰키나(*shekinah*), 즉 추방당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케노시스를 설명한다(Moltmann, 박동식 역, 2015). 몰트만은 케노시스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시대 출애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굽 광야 시절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언약(레 26:12)을 이루기 위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는 점에 몰트만은 주목한다(출 3:8).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일어난 장소는 척박하고 고된 광야였다. 그리고 그 고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박해와 추방으로 고난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계속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다(사 63:9)(Moltmann, 박동식 역, 2015: 243). 하나님은 집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동반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내주하심을 경험한 유대교는 ‘하나님의 자기비하’라는 신학적 주제를 착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출발점이라고 몰트만은 주장한다(Moltmann, 박동식 역, 2015: 243).

몰트만은 구약성서에서 출발하는 이 개념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루리아(Issac Luria)에게서 유대교 침춤(*zimzum*) 개념을 빌려온다. 침춤은 유대교 카발라(*kabbala*) 신비주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 행위를 자기-축소(*self-contraction*)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축소,’ 또는 ‘자기-제약’을 통해 자신의 편재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자기-제한’은 피조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적 측면에서 자신의 영원성을 제약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에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의 고난에 함께 내주하심으로써, 그리고 고난을 감당키 위해 성육신 하신 아들을 통해 자신을 온 인류에게 개방하신다(Moltmann, 박동식 역, 2015: 251). 자기-제약을 통해 이제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케노시스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영역에 내주하셔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이관표, 2018: 52).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통과 나약한 실존적 상황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기도 하다(이관표, 2018: 49).

케노시스의 시선으로 볼 때 권정생의 동화 속 하나님의 이미지는 더욱 생생하게 와닿는다. 그리고 초월적인 힘의 소유자로서 여겨졌던 하나님의 취약하고 무력해진 모습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권정생 작품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여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동화 속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첫 장면부터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우박 사건이다. 정성껏 농사를 지었건만 우박으로 인해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

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농부들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우박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다는, 우박으로 인해 고통가운데 있는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권정생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케노시스다.

동화 속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철거민촌, 그리고 낮은 자들이 하던 과일행상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은 서울의 전형적 달동네 지역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공주가 감기 걸렸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하고, 가난한 삼형제가 불장난하다가 죽는 순간 그리고 봉식이의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는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 생계 유지를 위해 거리에서 과일을 팔다가 노점상 단속반에 잡혀 험한 꼴을 당하는 예수님, 아들이 험한 상황을 당했음에도 응징하지 못하고 무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그러한 묘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 힘 사용 여부보다는, 전능한 하나님이 무력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상황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동화 제목이 암시하듯 하나님은 “우리 옆집”에 거하시는 이웃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질병이다. 작가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병치레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래 신은 절대 아프거나 고통당하면 안되는 존재였다. 그런데 병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낯설다. 그러한 고통은 하나님이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인간 삶의 현실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권정생은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물론 독자들은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고통으로 인해 무력해진 자들에게 또 다시 무력하고 취약한 하나님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의 무력감을 더욱 강화하여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기-제한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다루어 지면 고고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화된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형상, 2019: 34).

하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연약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나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케노시스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제한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제시하면서 자칫 굴절된 신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한다. 케노시스 신학에서 연약함은 역설적이게도 힘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기에 때문에 무력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 가운데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력함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4) 고형상(2019)은 케노시스의 자기-비움이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늘 주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칼빈의 “하나님의 맞추심(divine accommodation)” 개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포기되었다기 보다는 연약한 인간에게 맞추셨다는 것에 착안해서 케노시스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 전지전능한 위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대한 비움과 제한을 통해 드러난다. 이관표(2018: 63)의 설명대로 “진정으로 힘 있는 자만이 타인의 존재를 염려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힘 있는 자만이 다른 것들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모습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다.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고 고통의 현장에 내주하여 고통받는 자와 함께 눈물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의 또 다른 표현방식인 썸이다. 케노시스적 하나님은 전통적 이해와 전적으로 다른 자기-비움을 통해 그 완전함과 무한함을 드러낸다 (이관표, 2018: 53). 결국 우리 독자들은 무력함을 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무력함 속에 감추어진 ‘전능한 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정생 작품 속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힘있는 자가 자기-비움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다. 이와 관련 몰트만(Moltmann, 박동식 역, 2015: 252)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에서 그의 전능한 힘을 발견한다. 전능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케노시스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 폴킹혼(John Polkinghorne)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신학자 및 과학자들 간의 케노시스 연구 모임이 성사되었으며, 이 포럼에서 창조를 사랑의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로서 케노시스로 간주하는 논의를 펼치게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케노시스 창조이론』(2015)은 케노시스 신학을 창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기-비움은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창조를 자기-비움으로 간주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Polkinghorne, 박동식 역, 2015: 19).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케노시스는 결국 비움의 사랑이다. 벨커(Michael Welker, 박동식 역, 2015)는 하나님의 비움의 사랑이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며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다(이관표, 2018: 52, 55, 57 ; 전철, 2017: 30). 결국 모든 창조와 자기-제한은 사랑으로 귀결되며,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본질이다.

그런 맥락에서 권정생이 동화를 출판하면서 머리말에서 했던 구절을 생각해보자.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케노시스를 서술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하늘의 날아다니는 새도, 들에 피어나는 조그만 꽃 한 송이도 하느님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곁에서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사실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권정생, 1994: 글쓴이의 말).

권정생은 동화를 전개해 가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해서 강조점을 둔다. 사랑은 권정생 작품에서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이다(장수경, 2017: 128). 권정생이 동화속 등장 인물의 기쁨, 슬픔, 탄식, 분노 등의 강점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랑’을 통해서이다(장수경, 2017: 128).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 와서 인간 곁에서 내주하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다. 자기-비움을 통한 고통도 결국 사랑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변질하고 타락한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이쯤 해서 세상을 끝장내 버릴까라는 생각까지도 한다. 마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거두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어린 ‘공주’다. 공주는 세상 심판 계획으로 인해 잘못 이루는 하나님 곁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왜 꾸무시지 않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숨을 쉬세요?”라고 물으며 혹시 최후의 심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물어본다. 공주의 이러한 순진무구한 모습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순수함과 깨끗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확인케 한다. 그리고 이런 공주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게 한다. 공주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마음을 거두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했던 세상이 변질된 것을 마음 아파하지만 인간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생하며, 자기를 끝까지 제한하며 세상에 머문다. 물론 하늘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을 다짐한다. 그래서 동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거리 여기저기에 전등불이 들어올 때쯤...하느님은 좀 더 높은 꼭대기로 자꾸 올라갔습니다. 네온 불빛에 크리스마스 불빛까지 온통 꽃전등으로 반짝이는 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때쯤인지 밤이 깊어졌을 때, 하느님은 검정 털고무신을 신은 발로 더듬더듬 걸어서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애들이 걱정하며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야지.”

하느님은 조금 내려가다가 시린 두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었습니다 (권정생, 1994: 199-202)

이처럼 권정생은 케노시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승화시킨다. 동화 속에서 케노시스를 통해 고찰한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하다.

3. 권정생과 케노시스

그렇다면 왜 권정생은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그토록 깊은 관심을 가졌을까? 이를 위해 다시 금 본회퍼를 생각해보자. 서양 신학에서 케노시스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역사적 배경에는 세계대전이 있다(고형상, 2019: 15). 20세기로 접어들면서 1,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인류는 신의 현존으로 가득한 희망보다는 신의 부재로 채워진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무력함 연약함 비움 등의 가치가 신의 내재적 본질로 이해되었다(고형상, 2019: 15). 본회퍼의 글을 통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무기력해진 신앙인들이 가졌던 무력함과 그런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존재 인식이 케노시스 신학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음을 이미 확인하였는데, 한국 상황 속에서 권정생도 비슷한 것들을 느꼈다. 그 역시 2차 세계대전 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치열한 한국전쟁 속에서 신의 무력함을 경험한다.

1960년대 보릿고개를 거치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은 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절대량의 부족이 아닌, 나라의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였다는 점을 발견한다(홍인표, 2021: 45).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에도 그는 약자로서 끊임없이 절망감과 무력함을 경험한다. 자신을 지켜주는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가 자신을 강아지똥과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힘든 삶이었다(홍인표, 2021: 22). 그럼에도 오랜 고민 끝에 권정생은 본회퍼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하심보다는 내주하심을 고백한다. 권정생은 교회 중치기로 살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즉 하나님의 케노시스와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권정생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론적 가치는 무력함, 연약함, 비움 등의 가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함과 고통의 덕(virtue)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동화를 통해 그는 주장한다. 하나님은 공사장에서 힘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시며, 변두리 철거민 마을에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계시며, 셋방살이를 하던 봉식이 가당한 참변에 애통해하며 이웃의 슬픔에 참여하고 계시며, 오갈 데 없어 강변에 천막을 치고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 곁에 함께 계시며, 그들이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라고 작가 권정생은 고백하고 있다.

IV. 한국사회와 교회를 위한 케노시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즉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관표, 2018: 6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부르심에 진실하다면, 케노시스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Ellis, 박동식 역, 2015: 197). 하나님의 케노시스 사랑은 인간을 창조적 사랑으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을 담지한 자들이 되게 하므로, 인간은 케노시스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Welker, 박동식 역, 2015: 233).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케노시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케노시스의 삶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권정생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동화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펼쳐간다. 앞서 케노시스는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됨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권정생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케노시스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한가?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데요』 서문의 소제목—‘서로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위해’--가 암시하듯 이 세상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권정생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사회와 교회는 케노시스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다. ‘자기-비움’ 보다는 오히려 ‘자기-채움’으로 가득찬 한국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양산되고 있었다. 권정생의 동화가 묘사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분명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결합있는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세상논리가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의 자서전적 수필집 『우리들의 하느님』에 보면 한국교회는 서구인들이 마음대로 변질시킨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했다(권정생, 2008: 29).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정생은 이미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혼탁한 세상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1984년에 출판된 동화 『하느님의 눈물』이 이를 잘 보여준다(권정생, 1984). 이 동화는 돌이토끼와 하나님의 대화로 전개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탄식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 타인을 살상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평화와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기를 써서 남을 해치고 있음에 깊이 탄식한다. 이때 돌이 토키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린다. 바로 그 물은 하나님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었다.

그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라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혼탁해져 가는 세상을 향해 직접 내려오셨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세속논리로 점철된 현실을 바라보신다. 약육강식 경제체제 속에서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린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 곁에 하나님은 이웃이 되어 주신다. 동화 속에서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가 직면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회 문제들—재개발로 인한 철거민들, 빈부의 심각한 격차, 수많은 사건사고들, 소외된 자에 대한 사회적 방치, 통일 문제 등—을 묘사하면서 작가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 계층간 갈등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었다. 특히 권정생 자신의 평생 소원이던 남북통일이라는 민감한 문제까지도 과천덕 할머니를 통해서 다룬다.

하나님은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혼탁한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자.

맨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땐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세상이었는데, 흥축할 만큼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그러니까 말이지, 이쯤 해서 세상 끝장내어 버리면 어떨겠냐?”(129)

달리는 자동차,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전쟁터의 군인처럼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느님은 그것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냥 꾸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모든 걸 단단히 각오하기로 하셨잖습니까? 가엾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 되어 가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몸소 겪으면서 살아 보자고요.”

[하느님] “그렇지만 내가 만든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만든 사람도 이렇지는 않았어.”

[예수님] “그런데 어째서 이런 세상이 되어 버린 거죠?” (권정생, 1994: 127-57 부분 발췌)

혼탁한 현실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현장까지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세속화 및 물질주의와 기복주의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동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날 길거리 전도를 받게 되는데, 전도를 하는 사람의 논리에 오히려 하나님이 의아해하는 해프닝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독교 진리가 굴절되어 왜곡된 채 길거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교회 현실 때문이었다.

어느날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가셨는데 그곳은 매우 웅장한 건축물이 교회였다. 높은 천장에서 번쩍거리는 꽃등이 찬란하게 드리워졌고 앞의 강대상에는 꽃단지와 번쩍거리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었다. 자본주의에 잠식당한 교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다. 그 교회는 죄사함과 더불어 축

복만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정작 그 복의 진정한 근원되는 하나님은 교회 회중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된 채, 오직 축복이라는 단어만이 하나의 거창한 구호가 되어 혼탁한 예배당에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암담한 모습이 묘사된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함몰된 모습에 매우 놀란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동화 속에 가득하다.

심지어 권정생은 1992년 10월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다미선교회 종말론 논쟁까지 소환하며 한국 교회의 위태로움을 묘사하였다. 허약해진 한국교회를 침범하는 이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즉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는 기성교회가 제대로 올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의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

교회의 본질 보다는 기적만 바라는 교회의 요행에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진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웃 사랑보다 기적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적을 보여준 것이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러했잖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십자가 고통보다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자비를 원했지 제사를 받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불쌍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집도 없으니...”(권정생, 1994: 164-65)

이처럼 권정생은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엄중한 고발을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홍인표, 2021: 21). 이는 케노시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한국교회를 향한 권정생의 지적은 매우 무겁다. 그리고 때로는 가혹하다. 이러한 고언은 그의 오랜 고뇌의 산물이기도 하다. 물론 이와 같은 꾸지람이 한국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것 역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봉식이가 연탄을 마셨을 때 연탄가스를 마신 봉식이를 등에 업고 하나님은 비탈길을 험뎡거리며 뛰어간다. 어쩌면 죽어가는 봉식이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자화상일런지도 모른다. 봉식이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봉식이를 구하기 위해 그를 등에 업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권정생은 독자들에게 이것(봉식이)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이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비록 한국교회가 케노시스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구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기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뒤로한 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땀다: “애들이 걱정하며 기다릴 테니 어서 돌아가야지.’ 하느님은 조금 내려가다가 시린 두 손을 입에 대고 호호, 불었습니다”(권정생, 1994: 202). 권정생은 본서를 통해 이처럼 한국교회의 현실을 드러내며 케노시스로 대변되는 자기비움을 통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특별히 이 땅을 걱정하며 탄식하는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 어딘가에 오히려 제 십자가보다 몇 갑절 힘들게 이웃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권정생, 1994: 165)라는 예수님의 고백은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이자 간절한 권면이기도 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권정생의 작품에 나타나는 낮아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케노시스 신학을 가지고서 조명한 연구다. 권정생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새롭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케노시스 개념은 권정생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바람에 권정생은 불경(不敬)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케노시스라는 신학적 렌즈를 통해 조명될 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케노시스 신학으로 권정생의 문학 세계를 고찰할 때 권정생 작품 속에 깃든 나약해 보이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힘있는 분이요 창조 세계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확인된다. 케노시스를 통해 혹여라도 있을 이 작품에 대한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학자가 아님에도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욱 신학적인 글을 아름다운 아동 문학을 통해서 소개한 것은 그의 큰 공헌이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독자들에게 커다란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권정생의 작품은 하나님에 대해 전문 신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더욱 생생한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케노시스 개념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권정생의 외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권정생이 단순히 한국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비움의 정신을 통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신의 동화 속에 투영했던 것이다. 이 동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고언

(苦言)을 전하고 있다. 케노시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본 작품을 조명해볼 때, 권정생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온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권정생이 이 동화를 집필한 이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동화 속 사회와 현실의 모습이 여전히 작금의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다.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30년전 기록된 권정생의 작품에 담긴 케노시스 신학은 교회와 신학계에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형상 (2019). ‘하나님의 케노시스’(divine kenōsis)의 신학적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의 맞추심’ (divine accommodation). *신학논단*, 97, 7-39.
- [Ko, H. S. (2019). The Theological Problems of ‘Divine Kenōsis’ and ‘Divine Accommodation’ as an Alternative. *Theological Forum*, 97, 7-39.]
- 권정생 (1974). **강아지똥**. 서울: 세종문화사.
- [Kwon, J. S. (1974). *Doggy Poo*. Seoul: Sejong Culture]
- 권정생 (1984). **하느님의 눈물**. 서울: 산하.
- [Kwon, J. S. (1984). *Weeping God*, Seoul: Sanha.]
- 권정생 (1994).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서울: 산하.
- [Kwon, J. S. (1994). *God lives next door to me*. Seoul: Sanha.]
- 권정생 (2008). **우리들의 하느님**. 서울: 녹색평론사.
- [Kwon, J. S. (2008). *Our God*. Seoul: Greenreview.]
- 김순현 역 (2016). **옥중서신**,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서울: 복있는사람.
- [Kim, S. H. (2016). *Widerstand und Ergebung*. Seoul: Hismessage. Trans.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Munchen: Chr. Kaiser]
- 김기철 역 (2020). **신학이란 무엇인가**, McGrath, A. (2017).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서울: 복있는사람.
- [Kim, K. C. (2020).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Seoul: The Blessed People. Trans: McGrath, A. (2017).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John Wiley & Sons]
- 박동식 역 (2015). 비움: 삶과 우주론을 통합하는 주체,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Ellis, G. F. R. (2001). Kenosis as a Unifying Theme for Life and Cosmology,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Kenosis as a Unifying Theme for Life and Cosmology,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Ellis, G. F. R. (2001). Kenosis as a Unifying Theme for Life and Cosmology,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박동식 역 (2015). 세계의 창조와 완성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움,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Moltman, J. (2001).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The*

-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Moltman, J. (2001). God's Kenosis in the Creation and Consummation of the World,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박동식 역 (2015). 서론,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Polkinghorne, J. (2001). Introduction,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Introduction,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Polkinghorne, J. (2001). Introduction,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박동식 역 (2015). 낭만적 사랑, 언약적 사랑, 비움의 사랑, **케노시스 창조이론**. 존 폴킹혼 (편저). Welker, M. (2001).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D. S. (2015).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Seoul: Holy Wave Plus. Trans. Welker, M. (2001). Romantic Love, Covenantal Love, Kenotic Love, *The Work of Love*. Polkinghorne, J. (Ed.). Grands Rapids: Eerdmans]
- 손은실 (2022). '하느님' vs '하나님' 논쟁의 재해석: 기독교 용어 통일의 단초. **종교와 문화**, 42, 1-32.
- [Son, E. S. (2022). Revisiting the Controversy on the Divine Name "Haneunim" vs "Hanim": A Suggestion for Unifying Christian Terminology in Korea. *Religion and Culture*, 42, 1-32.]
- 엄혜숙 (2019). **권정생의 문학과 사상**. 서울: 소명출판.
- [Um, H. S. (2019). *Literature and Thought of Kwon Jung Saeng*. Seoul: Somyung.]
- 원종찬 (2017). **권정생의 삶과 문학**. 서울: 창비.
- [Won, J. C. (2017). *Life and Literature of Kwon Jung Saeng*. Seoul: Changbi.]
- 이관표 (2018). 현대 신학의 케노시스 이해로 보는 하나님과 인간: 케노시스 이론을 통한 신-이해와 인간-이해의 재구성. **한국조직신학논총**, 51, 45-79.
- [Lee, K. P. (2019). God and man in the Kenosis-understanding of modern theology. The reconstruction of God-talk and Human-understanding trough kenosis.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1, 45-79.]
- 이희정 (2018). 권정생과 톨스토이 작품의 비교 연구-모티프와 주제, 구성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3(02), 25-44.
- [Lee, H. J. (2018). A Comparative Research in Text of Kwon Jung-saeng and Tolstoy: Focusing on Motif, Topic, and Composi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63(02), 25-44.]
- 장수경 (2017). 권정생 동화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중달이 아저씨네」와 「빼떼기」를 중심으로. **동**

화와 번역, 34, 127-57.

[Jang, S. K. (2017). The Aspect and Meaning of Love in the Fairy Tales of Kwon Jung-saeng.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34, 127-57.]

전철 (2017). 케노시스 개념의 인문학적 함의 - 자기비움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하여. *신학과 사회*, 31(1), 9-40.

[Chun, C. (2017). Kenosis: A View from the Humanities: On the Social Possibility of Self-Emptying. *Theology and Society*, 31(1), 9-40.]

홍인표 (2021). **강아지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 서울: 세움북스.

[Hong, I. P. (2010). *The Kingdom of God sketched by Doggy Poo*. Seoul: Saeum Books.]

Altizer, T. (1966). *William Hamilton, Radical Theology and the Death of God*. Indianapolis: Boobs-Merrill.

케노시스 신학 관점에서 바라본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동화 이해

A Study on the Work by Jung-Saeng Kwon in terms of the *Kenosis*: Exploring
God Lives Next Door to Me

정덕희 (한남대학교)

논문초록

본 작품은 권정생의 작품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를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서 조망하는 연구다. 권정생의 동화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나타난다. 전지전능한 위엄은 제거된 채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고 있다. 동화 속 이러한 성육신의 모습은 케노시스 신학으로 조명될 때 독자들에게 새로운 신학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몰트만의 케노시스 신학을 통해 살펴 본 바, 권정생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케노시스는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권정생의 동화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지만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 권정생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인간들에게도 케노시스 정신이 회복되기를 요청한다. 동화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와 교회 현실은 자기-비움 보다는 자기-채움으로 점철된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권정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케노시스를 통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장편 동화라고 하기 보다는 교회를 위한 외침, 더 나아가 성육신에 대한 깊은 신학적 담론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 있는 동화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권정생, 케노시스,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자기-비움, 몰트만